

Elvis Presley의 후기 공연 분석

김현중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bonzurm@yahoo.com

The Analysis of Elvis Presley's Late Concert

Hyounjong Kim

Dept. of Popular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Rock'n Roll의 제왕으로 불리는 Elvis Presley의 후기 콘서트들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엘비스의 전설적인 인기는 초기 Rock'n Roll 선곡보다는 Gospel과 Country, Pop적인 선곡이 그 주요 원인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대중음악의 역사상 가장 많은 Top 40 히트곡을 낸 전설적인 아티스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설적인 인기는 그의 상징인 Rock'n Roll 보다는 Gospel과 Adult Contemporary 적인 스타일이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통계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1. 서 론

엘비스 프레슬리는 대중음악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많은 Top 40 히트곡(114곡)을 배출한 아티스트이다.¹⁾ 참고로 비틀즈의 넘버원 히트곡은 엘비스보다 2곡 많은 20곡이나 Top 40 히트곡은 엘비스의 절반(비틀즈는 52곡이다)에도 못 미친다.²⁾ 이러한 기록은 앞으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하는 아티스트의 숫자가 너무 많으며, 제작되는 곡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한 아티스트가 장기간에 걸쳐 차트를 점유하는 일은 엘비스 시대와 같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엘비스의 이러한 전무후무한 기록의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전설적인 록앤롤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자는 후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콘서트 곡목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판단해 보았다.

먼저 엘비스의 후기 콘서트라 함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왜 후기 콘

서트에 주목하는 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엘비스는 1954년 Arthur 'Big Boy' Crudup의 "That's All Right, Mama(A면)"/"Blue Moon of Kentucky(B면)"로 데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때부터 1957년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를 초기라 상정하고 1960년 전역 후부터 1968년 NBC-TV의 Come Back Special전까지를 중기로, 그 이후 1977년 엘비스의 사망 전까지를 후기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중기에는 콘서트가 거의 없었으며 대대적인 영화 출연으로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콘서트 선곡 분석

엘비스 프레슬리는 1968년 NBC-TV의 Come Back Special부터 1977년까지 총 823회의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1968년은 4번밖에 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도 정규 콘서트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후기 콘서트 통계에서 삭제하기로 판단하였다. 결국 1969년부터 1977년까지 총 819회의 콘서트가 진행된 것으로 통계를 산출하였다. 선곡에 대한 분석은 2가지로 진행했다. 첫째는 콘서트 setlist의 구성 중 엘비스 곡과 다른 가수의 cover 구성 비율을 조사하였다. 둘째는 전체 콘서트의 선곡 중 Rock'n Roll 스타

1) Joel Whitburn, *The Billboard Book of Top 40 Hits*, 9th Edition, Billboard Books, New York, 2010, pp 519-522.
2) Joel Whitburn, *The Billboard Book of Top 40 Hits*, 9th Edition, Billboard Books, New York, 2010, pp 55-56.

일의 곡과 Pop, Country, Gospel 등의 Adult Contemporary 스타일의 비율을 조사하여 보았다.³⁾

3. 결론

[표 1] 연도별 후기 콘서트 횟수 및 cover곡 비율

연도	콘서트 횟수	cover곡수	전체곡수	cover곡 비율(%)
1969	32	421	667	63
1970	70	912	1254	73
1971	83	1117	1654	68
1972	106	1474	2073	71
1973	115	1984	2594	76
1974	132	1903	2690	71
1975	101	1501	2203	68
1976	125	2224	2965	75
1977	55	883	1284	69
합계/ 평균	819	12419	17384	71

Cover곡의 대부분은 Pop, Country 스타일의 곡이기에 커버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Rock'n Roll 이외의 스타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거의 무방하다.

곡 스타일	선곡수	비율(%)
Rock'n Roll	8166	49
Others (Pop, Country, Gospel, Classical)	8331	51
합계	16497	

[표 2] 후기 콘서트 선곡 비율

전체 선정된 곡 중 선곡 횟수가 너무 작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엘비스의 경력 중 최소 30회 이상 선곡된 곡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Rock'n Roll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Pop, Country, Gospel, Classical) 곡들의 비율을 통계 내어 보았다. 비율은 거의 반반으로 나왔지만, R&B 스타일의 곡(Mystery Train, Little Sister 등)이나 Blues곡(Steamroller, Trouble 등)의 곡들도 모두 Rock'n Roll 스타일의 범주에 넣었기에 Rock'n Roll 스타일 보다는 다른 스타일들이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엘비스를 '록앤롤의 제왕'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 반반의 비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lvis Presley의 후기 콘서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곡보다는 다른 아티스트의 커버 곡이 많았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Rock'n Roll 스타일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선곡의 숫자를 합산하여 통계내었기에, 거의 매번 연주되었던 인트로 곡(See See Rider : 총596회)이나 이어서 연주되었던 곡(I've Got a Woman : 총710회) 등이 Rock'n Roll 곡으로 분류된 것과 R&B, Blues곡 등이 Rock'n Roll 곡으로 분류되어 통계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후기 콘서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Rock'n Roll 곡들은 Medley로 붙여서 한 곡을 짧게 짧게 노래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엘비스 자신이 후기 콘서트 진행에 있어서 Rock'n Roll 스타일의 곡보다는 다른 스타일의 곡들을 선호했다는 방증으로 이 같은 사실은 많은 콘서트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엘비스 사후의 전설적인 인기는 후기 콘서트의 역할이 지대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콘서트의 대부분의 선곡이 자신의 곡이 아닌 커버 곡이었으며, 스타일도 Rock'n Roll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서정적인 곡 위주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엘비스의 초기 록 넘버들은 엘비스 인기의 촉발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인기보다는 후기 콘서트의 주요 레퍼토리인 Pop과 Country, Gospel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엘비스의 3번의 그래미 수상은 모두 가스펠 부문이었다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⁴⁾ 그러나 엘비스를 'The King of Rock'n Roll'로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Rock'n Roll 스타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많은 뮤지션들에게 음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Joel Whitburn, *The Billboard Book of Top 40 Hits*, 9th Edition, Billboard Books, New York, 2010.

4) 피터 해리 브라운/팻 H. 브로스키(Peter Brown/Pat Broeske), "엘비스, 끝나지 않은 전설"(Down At The End Of Lonely Street), 이마고, 2006, p688.

3) setlist.fm 의 Elvis Presley data를 기반으로 조사함.

[2] 피터 해리 브라운/팻 H. 브로스키(Peter Brown/Pat Broeske), “엘비스, 끝나지 않은 전설”(Down At The End Of Lonely Street), 이마고, 2006.

[3] setlist.fm 의 Elvis Presley